

# 전기요금, 中企 93.0%가 “부담된다”

### 도움 될 정책으로, 계절·시간대 등 반영한 中企 전용요금제 꿈아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8월 21일부터 9월 6일까지 302개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비용 부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25일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 부담이 된다는 응답이 93.0%에 달했으며, '매우부담'으로 응답한 기업도 39.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요금 인상 대응계획으로는 △ '특별한 대책 없음'이 76.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 '냉·난

방, 조명 등 비핵심 사용량 절감'(12.9%),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응답기업의 77.5%가 납품단계에 전기요금 인상을 미반영하고 있었고, 반영하더라도 82.4%가 요금인상분의 20% 미만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요금 인상이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74.2%가 감소한다고 응답하였고, 8.9%는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된다고 응답하였다.

요금 절감에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은 △ '주요용 대비 산업용 전기요금

단기 급등'이 36.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 '설비 특성상 24시간 가동이 불가피함'(27.2%), △ '예측 불가능한 거래처의 발주패턴'(21.9%)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은 지원 정책은 △ '중소기업 전용요금제 등 요금개선'이 80.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 '노후기기→고효율기기 교체 지원'(23.5%), △ ESS(에너지저장시스템)보급 확산(7.6%) 등의 순으로 응답되었다.

특히, 전기요금 개선과 관련해 가장

시급한 부분으로 △ '계절별 요금 조정(6·11월 여름·겨울철 요금 → 봄·가을철 요금)'(45.3%), △ '시간대별 요금 조정(토요일 낮 시간대 증부하 요금 → 경부하 요금)'(32.9%), △ '에너지효율 향상 인센티브 도입'(16.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에너지 효율 향상 관련 정부 지원사업에는 11.9%만 참여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참여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 '지원정책이 있는지 몰라서(또는 늦게 알아서)'(49.2%), △ '필요한 지원정책이 없음'(29.7%), △ '지원절차가 까다로움'(10.2%)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김욱기 기자

## 전북은행, 소상공인 상생금융 지원

### 한국신용데이터와 협약 체결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25일 본점에서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한국신용데이터(대표 김동호)와 소상공인 상생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은행과 한국신용데이터는 데이터 기반 소상공인 맞춤형 상품 공동 개발 등 소상공인 신사업 협업을 통하여 다방면으로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추진 할 방침이다.

먼저, 전국 150만 사업장에 도입된 경영관리 서비스 캐시 노트의 데이터 고객의 접점을 활용해 소상공인의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및 장기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상품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 상품은 소상공인이 보유한 고금리 대출 및 만기 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을 저금리 및 장기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하여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시행 중인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 대상은 중·저신용(대표의 NCB 개인신용평점이 919점 이하)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 중 성실 상환 중이면서 은행권·비은행권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 애로가 있는 은행권 대출로 대출금리는 4.5%, 대출기간은 10년(매월 원금 균등) 상환이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한국신용 데이터 관계자는 "동네 가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금융 상품에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상생 경영 실천을 위해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추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은행 고객센터(1588-4477)에 문의하면 된다.

/이만호 기자



## K-배터리 쇼 2024 '새만금' 청정에너지 공급의 최적지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25~27일 3일간 경기도 킨텍스(KINTEX)에서 열리는 'K-BATTERY SHOW 2024'에 참가해 청정에너지가 필요한 기업 유치를 위해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10.2조원의 최대 규모의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한 새만금개발청은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구축 사업'을 통해 새만금 국가산단 입주기업이 알이백(RE100)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새로운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전시장 내 홍보관을 운영하며, 새만금지역의 청정에너지 수급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단지(2022년 7월 지정)' 사업 계획을 참여기업 경영진 및 전문가 등에게 적극 홍보하고 관련기업 유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개발공사, 한국농어촌공사는 새만금의 투자 장점, 유틸리티, 인센티브 현황 및 청정에너지 공급 계획 등을 기업들에게 1:1 맞춤형으로 안내하여 새만금국가산단이 이차전지 산업의 중심지로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한다.

/이만호 기자

## 식품연구원, 식품 수출기업 맞춤형 할랄교육 실시

### 온라인·대면 교육 중급·고급, 교육비의 90% 지원

한국식품연구원(원장 백형희, 이하 식품연)은 할랄식품 수출에 대한 이해도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국내 식품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업체 맞춤형 할랄교육'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식품연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로 지정받아 국내 농식품 수출기업의 인증지원, 연구지원, 정보제공, 인력양성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교육은 지난 4월 국내 식품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할랄교육 수요조사 결과, 대면 교육에 대한 기업들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기획되었다.

할랄은 '허용되다'라는 뜻의 아랍어로 할랄식품은 무슬림이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을 말한다. 세계 할랄시장은 무슬림 인구 증가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2022년 2조 3천억

달러에서 2027년에는 3조 1천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식품 분야는 할랄시장의 약 63.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2년 1조 4,030억 달러에서 2027년 1조 8,870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할랄식품 시장의 성장세에 따라 국내 식품 수출기업의 진출도 활발해지고 있으나, 할랄인증 기관마다 자체 표준을 활용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여 수출기업의 어려움도 함께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에 식품연은 국내 식품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할랄인증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할랄식품 시장진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업체 맞춤형 할랄 교육'을 진행한다.

이 교육을 위해 식품연은 (사)할랄 협회를 교육 운영 기관으로 선정하였

고, 협회와 함께 국내 식품 수출기업의 할랄 이해도에 따라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초, 중급, 고급 과정으로 세분된 커리큘럼을 개발했다.

대면 교육으로 진행되는 중급 과정은 대구(10월 8일, 엑스코), 광주(10월 15일, 상공회의소), 서울(10월 22일, aT센터)에서 진행되며, 주요 교육 내용은 △할랄/하람 △할랄인증 요구사항 △할랄인증 효력(상호인정) △할랄 마케팅 △질의응답 등이다. 특히 질의응답을 별도 시간으로 할애하여 기업들이 궁금해하는 할랄인증 문제 및 애로사항을 해소할 계획이다.

기초 과정은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되며 향후 12월 해외식품인증정보포털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고급 과정은 중급 과정 수강생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주제를 선정한 후, 선정된 주제에 대해 심도있는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욱기 기자

## 농어촌공, '2024년 데이터 분석과제 공모전' 시상식 개최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4일 '2024년 데이터 분석과제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우수 과제 16개를 선정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데이터를 활용해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지원하고 데이터 기반 업무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공사 내부 데이터뿐만 아니라 외부 데이터를 통합해 공사의 현안 사항을 해결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내·외부 전문가들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개, 우수상 3개, 장려상 12개가 선정되었다.



최우수상은 '시계열분석 기반 농지연금 가입자 추이에 따른 예측 프로그램 개발'이 차지했다. 농지연금 데이터와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시계열 분석 및 회귀분석을 통해 가입자와 해지자의 변동 추이를 예측, 위험요인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이를 통해

농지연금사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에는 '사진데이터 AI 분석기법을 활용한 공사부지 무단점유물 관리', '공사 용지매수보상시스템을 활용한 공익보상 토지가격 정보시스템 개발', 'AI 기반 농업용수 통합 물환경 안전지수 및 위험도 예보 시스템 개발'이 선정되었다.

특히 'AI 기반 농업용수 관리시스템'은 물환경 안전지수를 산출, 농업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김욱기 기자

## 권재한 농진청장, 전국 도 농업기술원장 협의회 주재

농촌진흥청 권재한 청장은 25일 오전 본청에서 전국 도 농업기술원장과 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7월 취임 후 첫 번째 업무협의회를 주재했다.

이날 비말구 발생에 따른 지역별 긴급 방제 등 추진 실적과 지난 주말 동안 내린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 및 대응 상황 등을 보고 받고, 각 농업기술원 현안 및 중점 추진 과제 성과와 계획을 살폈다. 아울러 규제병해충 예방 강화 및 신속 대응과 기상재해 대비책 마련 등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권 청장은 최근 충남, 전남·북, 경남 지역에서 비말구 개체 수 급증으로 긴급 방제와 이른 수확 유도 등의 대책 추진과 관련, 벼, 과수, 채소 등 주요 농작물의 수량 확보를 위해 수확시기까지 생육 점검, 재배관리, 제때 수확 유도 등 기술지원을 한층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농산물 수급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산지에서의 안정생산과 공급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상기상, 병해충 발생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와 품질 저하 최소화를 위해 한층 견고한 선제 대응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우선 이상기상 대응 위기관리 지침

현행화, 병해충 발생 사전 예측 고도화, 영농현장 기술지원 강화를 통해 반복되는 피해를 줄여나갈 것을 지시했다.

이날 권 청장은 참석자들에게 기술 기반의 농업 시대 흐름에 맞춰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농업에 접목해 활용하고, 농업인 등 정책 고객의 기술 수요 충족에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농촌진흥청의 중점 추진 방향을 설명하며, 첨단 농업기술의 신속한 개발과 현장 확산에 주력하고 있음을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디지털 육종 기술 확산 △농업 분야 기계화 촉진 △스마트 농업 확산 △다양한 민간 협력체계 구축·활용 △농업 부문 기후 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 △농식품 수출 지원 및 케이(K)-농업기술 확산 △정책 홍보 활성화를 중점 추진 방향으로 설정했다.

권재한 청장은 "현장에서 체감하는 연구 성과 창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빠른 기술 보급을 위해 중앙·지방 농촌진흥기관, 관계부처 간 협력에 더해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민간과의 협력도 필요하다"라며 지속적 변화와 혁신을 강조했다.

/김욱기 기자

#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주매일의 창간 16주년을 축하드립니다.

## 진안군농업기술센터

소장 고경식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ail.com